

유럽 온수기시장 1위 ‘OSO’ 인수 LG전자, HVAC사업 확장 총력전

〈냉난방공조〉

노르웨이 OSO 지분 100% 인수
히트펌프 냉난방+온수 솔루션
‘패키지형 제품’ B2B 시장 공략

LG전자가 유럽 프리미엄 온수기 시장 1위 기업인 노르웨이 OSO를 인수하며 냉난방공조(HVAC)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고효율 히트펌프와 온수 저장장치를 결합한 패키지형 제품을 앞세워 유럽 B2B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노르웨이의 온수기 전문 기업 OSO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상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르웨이 기업 OSO는 스테인리스 기반의 고효율 온수 저장장치(워터스토리지) 기술을 바탕으로, 히트펌프와 전기보일러용 온수기를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유럽 온수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OSO의 온수 솔루션을 통합한 패키지형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럽 내 HV



올해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냉난방공조 전시회인 ‘ISH 2025’에 참가한 OSO의 부스 전경. /LG전자

AC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글로벌 B2B 사업 전반으로 온수 제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탈탄소 정책 등으로 전기 기반의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RG에 따르면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2024년 약 120만 대에서 2030년 240만 대로 두 배 성장할 전망이다. 히트펌프는 온수 저장 기능이 필수로, 워터스토리지 기술

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전자는 OSO를 통해 글로벌 B2B HVAC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냉난방뿐 아니라 전기 온수기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인수 이후에도 OSO는 기존 브랜드와 조직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OEM 공급처와의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씨저드 브라텐 OSO 소유주는 “LG전자의 차별화된 고효율 히트펌프와 OSO의 혁신적인 워터스토리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OSO의 온수 솔루션은 LG전자 HVAC 사업 도약에 핵심적 촉매”라며 “양사 노하우를 융합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은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기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누레틴 파수 테르산 조선소 대표(왼쪽),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가 지난 2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선박 건조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

LS마린솔루션, HVDC 전력망 구축 나서

튀르키예 테르산 조선소와 본계약

LS마린솔루션이 튀르키예 조선소와 협력해 HVDC(초고압직류송전)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LS마린솔루션은 튀르키예의 테르산 조선소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마린솔루션은 케이블 적재 중량 1만3000톤, 총 중량 1만8800톤의 초대형 HVDC 포설선 건조에 착수한다.

해당 선박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HVD C 해저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고사양 장비를 탑재한다.

특히 장거리·대수심 해역에서도 접속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

계돼 HVDC 전력망 구축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갖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사양을 갖춘 선박은 단 3척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LS마린솔루션이 유일하게 관련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LS마린솔루션은 신규 포설선을 앞세워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내 전략사업은 물론, 유럽·북미 해상풍력 및 초장거리 해저망 구축 수요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선박은 약 2년간의 건조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LS그린링크 해저케이블 공장 과 연계해 설계·생산·시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턴키 수주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직접추출 실증

호주 앤슬리소시즈와 MOU 체결
DLE 실증 데모플랜트 구축·운영
리튬 자원 공급망 구축·확대 속도

포스코홀딩스가 북미 리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북미 현지에서 ‘리튬직접추출(DLE) 기술’ 실증 사업에 나선다.

포스코홀딩스는 30일 호주 자원 개발 기업인 앤슬리소시즈와 DLE 기술 실증을 위한 데모플랜트 구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시티 내 앤슬리소시즈가 염수 리튬 광권을 보유한 부지에 데모플랜트를 건설하고 DLE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DLE 데모플랜트 투자 추진은 리튬 자원 추가 확보 및 미래 기술 경쟁

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 전략의 일환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코어+뉴 엔진(2 Core + New Engine)’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이차전지소재 사업 중에서도 특히 리튬 자원 공급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 데모플랜트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2016년부터 독자 개발해온 DLE 기술의 상용화를 완성하고, 이를 북미 지역 미개발 리튬 염호 투자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착공에 들어갈 DLE 데모플랜트는 포스코그룹 북미 지역 리튬 사업 확장에 필요한 미래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은 폰드를 활용한 ‘자연증발법’이

다. 그러나 자연증발법은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만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DLE 기술은 대규모 증발pond 없이도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 경제성 있게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 공법으로, 북미 지역에서 리튬 자원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DLE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글로벌 리튬 기업들은 저농도의 염수 리튬 자원 개발을 위해 DLE 기술 확보 및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앤슬리소시즈는 리튬 원료와 부지를 제공하며 포스코홀딩스는 DLE 기술의 사업성 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양사는 실증 결과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추가 협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하이엠솔루텍, TMS 고객계정 9000건 돌파

5월 9104건… 전년 대비 19% 증가
시스템에어컨 운전데이터 실시간 점검

LG전자의 공조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어컨 온라인 유지보수 서비스 ‘TMS’의 고객 계정 수가 처음으로 9000건을 넘어섰다.

하이엠솔루텍은 지난 5월 기준 TMS 연결 계정 수가 9104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3년 5월 6077건 ▲2024년 5월 7647건 ▲2025년 5월 9104건으로 꾸준한 성장세다.

TMS는 LG전자의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LG 비콘클라우드’를 기반으

로 시스템에어컨의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고장을 예방하거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평균적으로 건물 한 곳당 한 계정으로 운영된다.

하이엠솔루텍 측은 이용 증가 배경으로 ‘운영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꼽았다. 하이엠솔루텍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로드 컨트롤’은 기존처럼 에어컨을 켜다 끄는 방식이 아니라, 실내 온도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소비만 줄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성수기(6~8월) 이 서비스를 도입한 고객은 평균 10%의 전력 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혜민 기자

LG전자, 탄소감축 2030년 목표에 ‘바짝’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배출량 91만t, 목표치 87.8만t 근접

LG전자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실적에서 2030년 목표에 바짝 다가섰다.

LG전자는 30일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친환경 경영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91만톤(t)으로, 2030년 목표치인 87만8000톤에 근접한 수치다.

LG전자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4.6%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고효율 설비 도입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국내의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Scope1) 온실가스와 간접(Scope2) 온실가스는 총 91만톤으로, 2030년 배출량 목표치인 87만8000톤에 근접한 수치다.

제품 사용단계(Scope3)에서도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코어기술 등 고효율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 지난해 7대 주요 제품의 사용단계 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9.4% 줄였다. 이는 2030년까지 20% 감축 목표에 거의 도달한 수치다. /이혜민 기자

‘비스포크 AI 콤보’ 글로벌 최고 보안등급

SAMSUNG

삼성전자 ‘UL 솔루션즈’ IoT 보안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다이아몬드’ 획득

삼성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2년 연속 글로벌 최고 보안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가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획득했다고 30일 밝

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UL 솔루션즈는 스마트 가전의 보안 수준을 33개 항목으로 평가해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등 5단계로 구분한다. 다이아몬드 등급은 악성 소프트웨어 탐지, 불법 접근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모든 항목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최대 건조 용량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음성비서 ‘빅스비’와 터치스크린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삼성의 독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보안 플랫폼 ‘녹스(Knox)’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혜민 기자